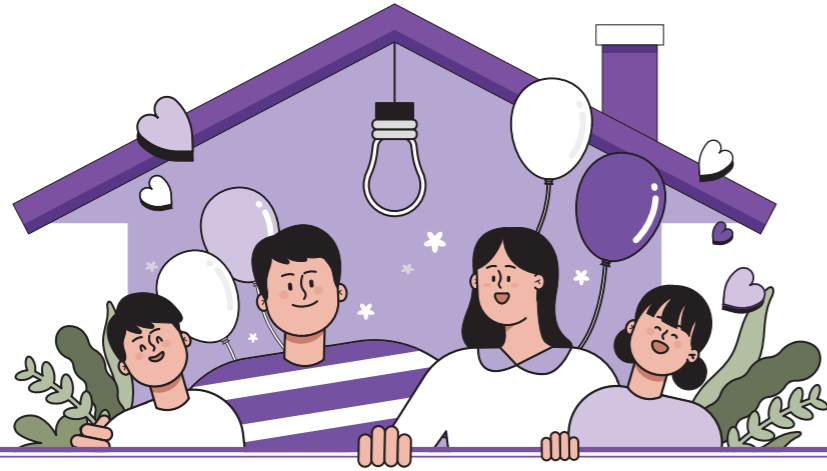




글. 이완정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 한국아동학회 회장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은 긍정 양육으로부터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도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학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훈육과 학대, 그 사이에서

OECD가 2020년 발간한 「21세기 아동」이라는 책을 보면, 21세기를 사는 자녀가 마주칠 세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부모 역할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다. 그 원리는 ▲**온정적 태도**, ▲**자율성 지지**, ▲**한계 설정**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 표현은 쉽게 하지만, 자녀의 연령에 맞게 자율성을 지원하면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주는 것을 어려워한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에 훈계하는 목소리가 때때로 커지고, 점점 표현이 격해지다 보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긴다. 매번 후회하고 개선하려 해도 자녀

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현이 자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훈육은 옳고 그름, 되고 안 되는 것의 질서를 가르치는 일이다. 아동은 올바른 훈육에 의해 자기조절과 통제능력을 배울 수 있는데, 이는 부모나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체벌이나 분노, 거짓 협박은 아동학대의 ‘*니어미스’

훈육과 학대는 기울어진 경사로에서 좌우를 움직이는 구슬과도 같다. 훈육이 과해져 학대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학대 행

위를 훈육이라 호도하는 부모도 있다. 훈육과정에서 ▲예측 불가능성(부모가 언제, 왜 화를 낼지 알기 어려우며 부모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음), ▲분노 동반(부모가 분노하는데 그렇게 화를 낼 일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행동 통제를 위해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아동이 부모의 행동에 공포를 느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이는 학대로 가는 선을 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다. 체벌 연구의 대가인 스트라우스 박사는 “체벌은 부모가 아동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는 자기 좌절감을 나타내는 행위일 뿐”이라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일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아동을 체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훈육 과정에서 양육자들은 비난, 무시, 조롱, 차별, 거짓 협박 등

의 언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는 훈육보다는 정서학대가 되기 쉬우며, 아동이 양육자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실제 아동학대로 사례판단이 된 경우들을 분석해 보면 양육자의 훈육 행동에서 이런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을 엄하게 훈육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훈육의 단계에서 부정 요소가 나타나는 상태를 아동학대의 ‘니어미스(Near Miss)’라 인식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부모는 훈육을 명분으로 자녀에게 비난, 조롱, 거짓 협박 등의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쳐 보고, 만약 그렇다면 이를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니어 미스(Near Miss)** :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의 아홉가지 실행원칙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으니 자녀를 잘 살펴봐 주세요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성향인지를 돌아쳐 보세요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꿔 보세요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 주세요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 주세요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세요



함께 키우기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